

##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 동향

연구호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지역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은 인문학적 지역연구와 사회과학적 지역연구의 학제적 통섭, 순수 기초 연구와 응용 정책 연구의 유기적 연계성, 국내적 연구와 국제관계적 연구의 체계적 시각 정립일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본격화된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는 아직 역사가 일천하여 위의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스탠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탠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사회과학 배경 연구, 스탠 외 국가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문학 배경 연구로 편중되어 있다. 또한 학제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최근의 연구 지원 동향을 보면 순수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특히 중앙아시아사 연구에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내적 연관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국내 학자 간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서투르키스탄 연구자와 동투르키스탄 연구자들 사이의 소통이 시급하다. 넷째, 몽골연구에 비해 위구르·티벳 연구가 급감하고 있어 이 지역 연구의 지속가능성이 염려된다. 다섯째, 스탠국가의 경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연구는 사실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여섯째, 1차 전문 연구자의 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스탠국가들의 경우 러시아 연구자들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대학원에서도 중앙아시아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연구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독립 후 중앙아시아 지역은 개인적·민족적·국가적 정체성의 급격한 변화와 재구성의 과정 속에 있다. 정체성을 키워드로 삼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다종교·다문화·다민족이 공존하면서 그려내는 복합적, 중첩적 정체성의 전체적 지형도를 그려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앙아시아 지역연구를 위한 공통의 목적 아래 각 학문 분과의 통합보다는 각 학문 분과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심화하며, 공존하게 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연구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아시아 연구가 스탠국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보아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개념은 민족적으로 동투르크인, 동이란인, 몽골족의 분포에 모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현대 지정학적 관점에서 스탠 공화국들과 신장과 아프가니스탄을 중앙아시아의 문명 지대의 핵심 지역으로 하고 여기에 이란의 호라산 지역, 파키스탄의 북부지역, 러시아의 타타르스탄 지역, 인도의 라자스탄에서 아그라에 이르는 지역이 포함하는 대중앙아시아 개념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정체성 중심의 연구와 학제적 연구 지향도 이러한 포괄적인 지리적 개념하에서의 내적 연관성 모색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결실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주제어 중앙아시아, 지역학연구방법론, 동투르키스탄

## I. 서론

중앙아시아 연구의 대표적 저널인 *Central Asian Review*가 창간된 것은 1982년이지만 서구에서 중앙아시아 연구가 활성화된 것은 90년대 초반 이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1993년 하버드 대학교 ‘데이비스 센터(Davis Center for Russian and Eurasian Studies)’와 ‘중동연구센터(Center for Middle Eastern Studies)’가 연구와 교육이 통합된 ‘중앙아시아-카프카스 프로그램(Program o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을 만든 것이 중앙아시아 연구의 기폭제가 되었다. 인디애나 대학교에 중앙유라시아 학과가 만들어진 것도 1993년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은 연구보다는 교육에 더 치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격적 연구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중앙아시아 연구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스타(Frederick S. Starr)가 회장으로 있는 ‘중앙아시아·카프카스 연구소-실크로드 프로그램(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and Silk Road Studies Program)’이다. 이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국제대학원(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이 1996년 만든 ‘중앙아시아·카프카스연구소’와 스웨덴의 ‘안보·발전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가 2002년 만든 실크로드 연구프로그램이 2005년에 공동연구센터로 발전한 것이다. 1999년부터 격주로 *Central Asia-Caucasus Analyst*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2003년 계간지 *The China and Eurasia Forum*을 발간하였다(2010년 겨울호 이후 중단 상태에 있음).

중앙아시아 전문 학회들도 이 무렵 만들어졌다. 유럽에서는 1995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덴마크의 학자들이 ‘유럽 중앙아시아 학회(European Society for Central Asian Studies)’를 설립하였고 미국에서는 ‘중앙유라시아 학회(Central Eurasian Studies Society:CESS)’가 2000년 설립되어 2002년부터 반년지인 *Central Eurasian Studies Review*를 발간하였다. 이 저널은 2009년 이후 발간되지 않고 있는데, 학회의 핵심 인사들이 Taylor & Francis 출판사가 1982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연구의 저명한 학술지인 *Central Asia Survey*의 편집위원들이기 때문에 이 저널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 자체 저널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앙아시아 연구 발전 학회(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entral Asian Research)’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Journal of Central Asian Studies*를 발간하였고 독일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간지로 *Caucasi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를 발간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지는 못하다.

주목할 만한 저널은 2000년부터 스웨덴에서 발간되고 있는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이다. 1998년 설립된 스웨덴의 ‘중앙아시아·카프카스 연구소(Institute for Central Asian and Caucasian Studies)’가 1999년에 설립된 아제르바이잔의 ‘카프카스 전략 연구소(Institute of Strategic Studies of the Caucasus)’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저널이다. ‘중앙아시아·카프카스 연구소’는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중국, 이스라엘,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란에 브랜치를 갖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가 시작된 것은 대략 1990년대 중반으로 보이나 보다 활성화된 것은 2005년을 넘기면서부터로 보인다. ‘중앙아시아학회’가 창립된 것은 1996년이나 대부분 회원들의 전공이 역사, 복식사, 미술사 등 역사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고 당시 연구 대상은 주로 동투르크스탄 지역이어서 스탄국가<sup>1</sup>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중앙아시아학회’는 2007년 법인화되었다. 2004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중앙아시아어과가 설립되었으며 2007년에는 서울대학교에 ‘중앙유라시아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대부분 이 시기에 관련 기존 학회에서 중앙아시아 연구가 새로운 분야로 인식되었다. 2006년 ‘한국 국제정치학회’에 중앙아시아 분과가 만들어졌고 ‘한국 슬라브학회’도 정규 학술회의에 중앙아시아 세션이 추가되었다. 2008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가 인문한국사업 유라시아 사업단에 선정되면서 중앙아시아 연구 활동과 함께 관련학회와 중앙아시아 연합학술대회를 2009년부터 시작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09년부터 중앙아시아를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고 연구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몇

<sup>1</sup>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서투르크스탄 다섯 개 공화국의 이름이 모두 스탄으로 끝나서 흔히 스탄국가로 불리며 영어권에서도 흔히 ‘stans’라고 부른다.

해가 되지 않았고 역사학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전공자들이 중앙아시아 봄 이후 중앙아시아 연구를 자신의 연구 영역에 포함한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부족하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범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러시아 연구학회, 중동 연구학회, 이슬람 연구학회 등에서 중앙아시아를 모두 자신의 연구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어 합의된 지역의 개념을 결여하고 있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지역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은 인문학적 지역연구와 사회과학적 지역연구의 학제적 통섭, 순수 기초 연구와 응용 정책 연구의 유기적 연계성, 국내적 연구와 국제관계적 연구의 체계적 시각 정립일 것이다.

우리의 중앙아시아 연구는 아직 역사가 일천하여 위의 기준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전문 연구자들이 부족하다. 스탠국가들의 경우 과거 구소련 공화국의 일원이었고 독립 이후에도 사실상 러시아의 지배권하에 있으며, 또한 이들이 러시아어권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연구자들이 러시아 연구와 함께 중앙아시아 연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반면 중앙아시아에서 공부했거나 또는 서구에서 중앙아시아학으로 학위를 받은 학자의 수가 두 자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구르 신장지역은 분리주의 성향으로 인하여 정치적 시각에서 다루는 학자들이 있지만 위구르 신장 지역 전문연구자라 보기 어렵고 몽골권 연구의 경우 역사학적 시각에서 깊이 다루는 학자들이 있지만 통섭적 차원의 연구자들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학제적 통섭과 관련하여 위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한국 슬라브학회’에서는 스탠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학적 연구 경향이 강하고 ‘중앙아시아 학회’의 경우 동투르크키스탄 대상의 역사학적 연구 경향이 강하다. 학적 배경에 따라 연구 대상 지역이 다르고 상호 통섭의 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문학적 지역연구와 사회과학적 지역연구의 통섭과 아울러 스탠국가들과 동투르크키스탄 연구의 통합적 교류도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스탠국가들의 경우 한국의 자원외교 대상국으로서 그리고 신흥시장으로서의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정책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정책연구와 기초 순수 지역연구와의 유기적 연계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연구의 지리적 범주 설정의 모호성이 지속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지만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범주 설정에 관해서는 서구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스탠국가들만이 독립된 국가 개체이고 또한 이들 국가들이 한국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부상함으로써 연구들이 스탠국가들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중앙아시아의 균형적 연구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서구의 중앙아시아 연구 동향을 참조하면서 위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지역연구의 방향 기준에서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동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봄과 아울러 향후 연구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중앙아시아 지리적 범주화 논쟁

중앙아시아 연구 동향을 분석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개념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연구가 국익 추구의 정책 지향적 연구가 많아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연구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다섯 개 스탠 공화국에 집중되며 특히 사회과학 기반의 중앙아시아 연구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다. 그러나 중앙아시아가 역사적으로 유목민족과 실크로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민족의 이동과 교류가 심했던 것을 돌아보면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개념은 보다 광범위하다.

중앙아시아를 별개의 지역으로 처음 생각한 것은 1843년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였다. 그 이후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경계는 다양한 정의에 따라 달라졌다. 가장 제한된 정의는 소련의 공식적 개념으로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만을 포함하는 중간아시아(Middle Asia, Средняя Азия)가 그것이다. 보다 광범한 정의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였던 적이 없었던 지역까지를 아우르는 중앙아시아(Central Asia,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이다. 그러나 러시아도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해 왔다. 그러나 독립 이후 4개의 구소련 중앙아시아 연방국가 정상들은 1993년 타슈켄트에서 만나서 중앙아시아의 개념에 카자흐스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다섯 개 스탠국가를 가리키는 중앙아시아가 가장 보편적 개념이 되었다.



그림 1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정의

소련 붕괴 전에 유네스코(UNESCO)는 풍토에 근거하여 중앙아시아를 정의하여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르면 몽골과 티벳, 그리고 이란 북동지역(골레스탄, 북호라산, 라자비 지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북서변경주(NWFP: Northern Area, Khyber Pakhtunkhwa), 파키스탄의 아자드 카슈미르주(Azad Kashmir)와 펀자브 지역, 인도의 펀자브, 카슈미르, 라다크 지역, 러시아의 북동지역에 있는 남부 타이가 지대, 그리고 다섯 개의 구소련 스탄국가 등이 중앙아시아에 포함된다.<sup>2</sup>

중앙아시아의 지역을 정의하는 또 다른 기준은 민족이다. 특히 동투르크인, 동이란인, 몽골족의 분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들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으로 중앙아시아를 규정한다면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남시베리아의 투르크지역, 다섯 개의 스탄 공화국, 아프간 투르크스탄이 포함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체와 파키스탄 북부지역 그리고 카슈미르 계곡 지역이 포함될 수도 있으며, 티베트인과 라다크인의 거주 지역도 포함될 수도 있다.

중앙아시아의 현대적 개념에는 다섯 개 스탄국가, 아프가니스탄 북동 이란, 북부 파키스탄, 신장과 티벳, 그리고 동러시아의 남부 시베리아가 포함된다.

<sup>2</sup> [http://en.wikipedia.org/wiki/Central\\_Asia](http://en.wikipedia.org/wiki/Central_Asia) 참조(검색일: 2012년 3월 24일).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범주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해관계의 교차지대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문명적 경쟁의 공간으로 중앙아시아를 보아야 한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과정을 도식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가 지역형성의 다양한 개념이 나타난 원인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그다지 효과적이진 않지만, 광대한 중앙 유라시아 공간을 지정학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 연구자 보가투로프(А.Д. Богатуров)와 미국의 유라시아, 특히 중앙아시아 전문가인 스타의 견해는 매우 흥미롭다.

보가투로프의 견해에 의하면, 중동에서의 미국과 연합국들의 활발한 활동, 중국의 신‘서구’전략, 인도와 파키스탄의 역할 증대와 같은 동아시아 ‘광대한 공간’에서의 국제관계의 새로운 경향이 새로운 지정학적 지역의 형성과 그 결과로서 중동부 아시아라는 새로운 국제관계 하위체계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그는 중동부 아시아를 ‘카스피해 동쪽으로부터 중국의 태평양 해안에 이르는 단일한 정치적-전략적 공간’으로 간주한다(Богатуров, 2005: 102). 보가투로프가 자신의 논리구조의 기반으로 삼는 것은 첫째, 소련 붕괴 이후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간의 민족·인구적, 지리적, 정치·전략적 ‘연결’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연결이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안보 부문에 있어서 복잡한 상호의존성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상호의존성이 더욱 굳건해졌다는 점도 강조한다(Богатуров, 2005: 103). 따라서 구소련 중앙아시아의 안보도 아프간-파키스탄 문제(‘듀란드’ 라인) 및 인도-파키스탄 문제(카슈미르)의 해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Богатуров, 2005: 104). 두 번째 요인은 서부 및 북서부 국경에서의 중국의 활발한 활동이다. 보가투로프의 견해에 의하면, 1990년대에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OC)’을 통한 다자적 협력기구 건설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전개했다(Богатуров, 2005: 105). 세 번째 요인은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군주둔이다. 네 번째 요인은 러시아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의 변화와 러시아의 ‘유라시아화’, 동(東) 유라시아에서의 경제적 협력과 안보문제에 대해 높아진 관심이다. 그리고 동유럽의 EU 편입으로 나타난 중동부 유럽과 유사하게 중동부 아시아 역시 두 ‘구’(舊) 지역의 ‘결합’의 결과이다(Богатуров, 2005: 106). 이후 2005년 6월 21일 알마티

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안보 및 지역협력에 관한 학술회의에서의 발표에서 보듯 투로프는 중앙아시아의 남쪽 이웃국인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지역을 대(大)중앙아시아(Greater Central Asia)라고 불렀고, 이로써 대중앙아시아에 관한 스타의 유명한 개념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 개념의 핵심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경제적, 문화적 경계를 확장하는 데에 있다(Starr, 2005: 38). 스타는 스타 공화국들과 신장과 아프가니스탄을 중앙아시아 문명 지대의 핵심 지역으로 하고 여기에 이란의 호라산 지역, 파키스탄의 북부지역, 러시아의 타타르스탄 지역, 인도의 라자스탄에서 아그라에 이르는 지역을 포함하여 대중앙아시아를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중앙유라시아라는 용어와 달리 대중앙아시아는 외부 세력이나 국가 이데올로기보다는 지역의 고유 특성, 즉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되었음을 강조했다(Starr, 2008: 6).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정의와 관련해서 꼭 정리해보아야 할 용어는 중앙유라시아이다. 중앙유라시아는 주로 미국 학자들이 사용하는 지리적 개념으로써 미국의 유라시아 지역연구 학회라 할 수 있는 ‘중앙유라시아연구회(Central Eurasian Society Society: CESS)’가 앞장서고 있다. 이들이 정의하는 바로는 몽골 고원(몽골, 내몽고, 남시베리아, 칼미키), 티벳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티벳, 라다흐, 네팔, 부탄, 시킴), 중앙아시아 오아시스(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위구르), 스텝 투르크(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타르, 바쉬키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피노우그리아(Finno-Ugric)족(헝가리,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이 중앙유라시아에 포함된다(Stone, 2005: 441-451). 따라서 광의의 중앙아시아 개념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중앙아시아’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발견되는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주로 연구방법, 목적, 과제에 있어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지정학적 질서와 문명적 지대의 교차지대가 되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 아주 적합한, 고유하고 분명한 일련의 범주들이 이미 존재한다. 이러한 범주들 중 일부이기는 하지만 교육, 문화적 가치, 경제적 하위문화, 행동양식 등을 사람들이 널리 공유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재생산되고 있기까지 하다. 중앙아시아가 지역적 (하위)복합체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를 단지 다섯 ‘스탄’ 국가의 집합으로 보는

것은 편협하며 발전 가능성의 유사성은 물론 그 차별성까지 결정한 역사·문화적, 정치·지리적, 사회·경제적 조건들의 복합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중앙아시아 개념에 근거해서 향후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정의를 보다 유동적이고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정의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중앙아시아 범주 중 주권 국가는 스탠국가와 아프가니스탄 뿐이고 스탠국가는 자원으로 인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반테러 전쟁으로 인해 사회과학 중심적 지역연구와 정책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 외 지역들은 민족적·종교적·문화적 연계성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어서 주로 역사적·인문적 연구가 활성화 되어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서는 대중앙아시아 개념에 대한 중앙아시아 연구자들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스탠국가 연구를 중심으로 하되 사회과학자들은 동투르키스탄 연구, 그리고 인문역사학자들은 서투르키스탄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동서투르키스탄 전체에서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내부 상호작용과 재생산 결과를 창의적으로 도출할 때 중앙아시아가 지리적으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중앙아시아의 연구 동향

#### 1. 연구 논문 및 저서의 연구 동향

전문학술지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연구의 경향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논문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는 1990년대 말에 본격화되어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스탠국가들에 대한 공동 연구(스탄국가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논문 수도 연 10편 내외의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위구르 신장 연구는 정체상태이고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연구는 20년간 연구가 10편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표 1 참조)

서구의 중앙아시아 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Central Asia Survey*의 연구 대상

표 1 중앙아시아 연구 논문의 국가별 연도별 분포(2012년 4월 현재)

	스탄공통	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스탄	동투르 키스탄
1991	0	0	0	0	0	0	0
1992	2	0	0	0	0	1	0
1993	1	2	0	0	0	0	2
1994	1	2	1	0	0	0	0
1995	2	3	0	0	0	0	3
1996	6	2	1	0	0	0	0
1997	4	7	2	0	0	0	1
1998	8	10	3	0	0	2	8
1999	6	7	2	4	0	1	3
2000	5	3	2	0	1	0	1
2001	1	3	3	0	0	0	1
2002	5	3	2	0	0	0	3
2003	6	5	0	0	0	0	1
2004	17	6	5	0	0	1	1
2005	9	10	5	0	2	0	0
2006	14	12	7	0	0	0	7
2007	21	10	7	4	1	0	2
2008	15	16	7	1	0	2	3
2009	12	10	9	2	0	0	1
2010	33	10	8	0	2	1	3
2011	21	1	7	1	1	3	3
합계	189	122	71	12	7	11	43
비율	41.5	26.8	15.6	2.6	1.5	2.4	9.5

국가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는 스탠 국가 공동연구와 카자흐스탄 연구가 70%나 되어 과도하게 여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Central Asian Survey*의 경우를 보면 40% 정도이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연구의 경우 한국의 경우 6.5%에 불과하나 *Central Asian Survey*의 경우는 20%를 넘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 분야를 분석해 보면 자원, 경제, 정치 등 사회과학의 비율이 45%를 넘는데 반해 문화, 역사 연구는 37% 정도이다. 자원을 포함하면 경제가 20% 정도이고 국내 및 국제정치가 25%가량 된다(그림 3 참조). *Central Asia Survey*의 경우는 경제가 4.2%에 불과하여, 우리는 중앙아시아를 신흥시장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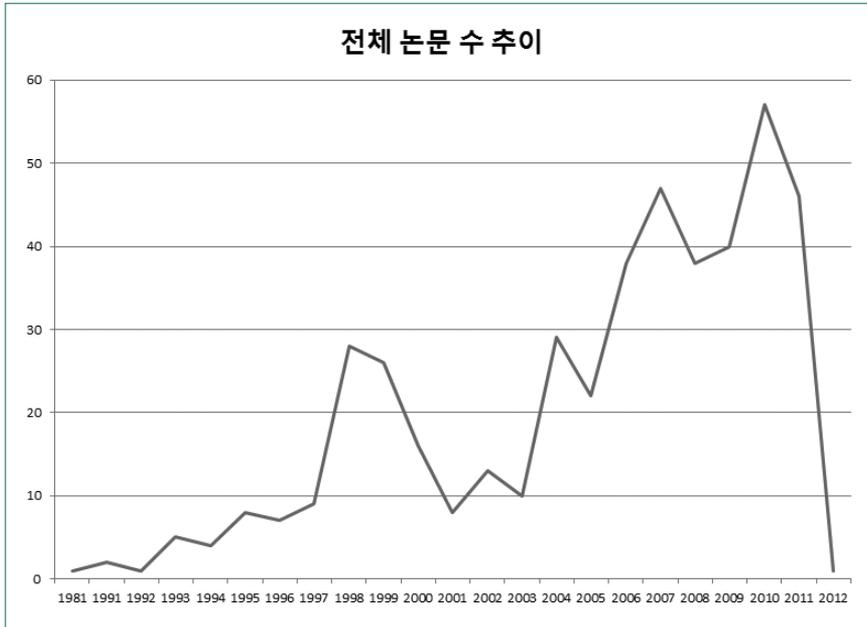


그림 2 중앙아시아 연구 논문 수 추이(2012년 4월 현재)

표 2 Central Asian Survey 게재 논문의 대상국가(2012년 4월 현재)

	스탄 공동	카자흐 스탄	우즈베 키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메 니스탄	스탄 외 국가			
							위구르 신장	카프 카스	아프가 니스탄	기타
1982~1990	20.5	8	15	3.5	1.5	3	11	17	74	105.5
1991~2000	42	21.5	21.5	4.5	6	3	25.5	49	22.5	66.5
2001~2012	41	11.83	37.33	34.83	18	4	20	60	19	17
합계	103.5	41.33	73.83	42.83	25.5	10	56.5	126	115.5	189
비율	29.3	11.7	20.1	12.1	7.2	2.8	16.0	제외	제외	제외

원협력국으로 보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정치에 대한 연구도 *Central Asian Survey*의 경우 25%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11%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편이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내 및 국제 정치 연구가 많이 늘었는데 키르기스스탄의 색채혁명 이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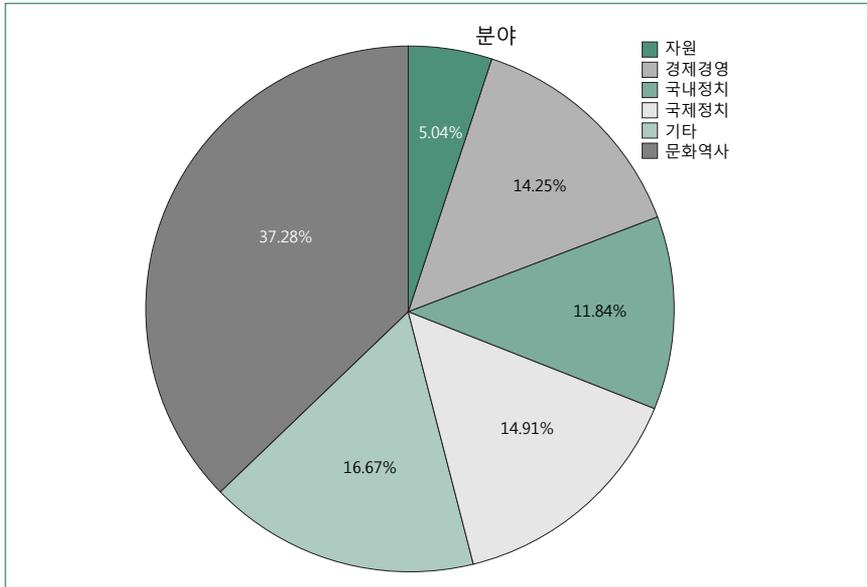


그림 3 중앙아시아 연구 전공 분포

표 3 Central Asian Survey 게재 논문의 연구 전공

	국내정치	국제정치	경제	문화역사	기타
1982-1990	63	33	7	77	79
1991-2000	49	43	14	104	63
2001-2010	93	67	13	72	25
합계	205	143	34	253	167
비율	25.6	17.8	4.2	31.5	20.8

양아시아의 민주화 문제, 카스피해를 둘러싼 강대국의 경쟁 심화,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한 반테러 문제 등이 글로벌 이슈화됐기 때문이다(표 4 참조).

국가 별로 연구 전공 분포를 분석해 보면 경제학 배경의 연구는 주로 스타나가 공동,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스타나 5개국 중 자원 및 경제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중앙아시아경제공동체(CAEC),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등의 지역기구를 통한 경제통합과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의 관세

표 4 국가별 연구 전공 분포

분야	스탄	카자흐 스탄	우즈베키 스탄	투르크메 니스탄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 스탄	동투르키 스탄	합계
자원	5	12	2	2	1	1	0	23
경제경영	26	23	11	1	0	0	4	65
국내정치	13	21	7	3	0	6	4	54
국제정치	41	11	6	4	4	1	1	68
기타	26	19	22	2	0	1	5	76
문화역사	79	36	23	0	2	2	29	170
합계	190	122	71	12	7	11	43	456

동맹 출범을 배경으로 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문제가 부각되었다. 국내 정치 연구는 주로 중앙아시아가 갖고 있는 씨족문화와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고 있는 권력 엘리트의 후견주의 성격,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조직인 마할라가 갖는 정치적 의미 그리고 타지키스탄의 경우 이슬람 급진정당 문제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국제정치의 주요 연구로는 중앙아시아 지역주의 문제, SCO 및 CSTO를 중심으로 한 지역 안보 문제, 그리고 수자원 갈등 문제 등이 전반적인 카스피해를 둘러싼 거대게임의 틀 속에서 논의되었다. 인문학적 배경의 연구 주제로는 신생국으로서의 국민정체성 형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언어정책 문제, 이슬람 문제 등의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스탠국가들의 자기 역사 새로 쓰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모두의 공동 관심 중 활발하게 연구된 주제는 고려인 문제이다. 고려인 문제는 국내 학자들뿐만 아니라 고려인 학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또한 중앙아시아인들의 이민 연구, 특히 중앙아시아 한국 이주민 연구도 생겨났다. 그리고 대중문화로는 중앙아시아 영화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신장 위구르를 위시한 동투르키스탄의 경우 역사, 문화, 복식사, 언어 및 문화 등 인문학적 연구가 대세를 이루었다. 몽골의 경우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인문학적 연구가 대세이다. 본 연구가 추산한 통계는 KISS 및 DBPIA에서 중앙아시아로 검색하여 확인된 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이어서 몽골의 경우 상당수 연구가 빠져 있다. 성동기의 연구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몽골연구 논문은 208편이고 그중 사회과학 배경의 연구는 32편으로 전체의 15%에 불

표 5 몽골연구의 전공 분포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합계
연구 논문	어학	3	9	1	4	4	6	2	1	30
	문학	1	2	4	1	1	0	1	1	11
	역사	13	9	8	9	7	9	4	2	61
	문화	4	2	3	2	4	4	0	2	21
	복식	1	2	0	0	1	1	2	0	7
	예술	0	1	1	1	1	1	0	1	6
	사회과학	4	5	4	7	2	7	0	3	32
	이공계	4	6	8	6	9	1	3	3	40
	합계	0	0	0	0	0	0	0	0	208

출처: 성동기, 동투르키스탄 연구동향, mim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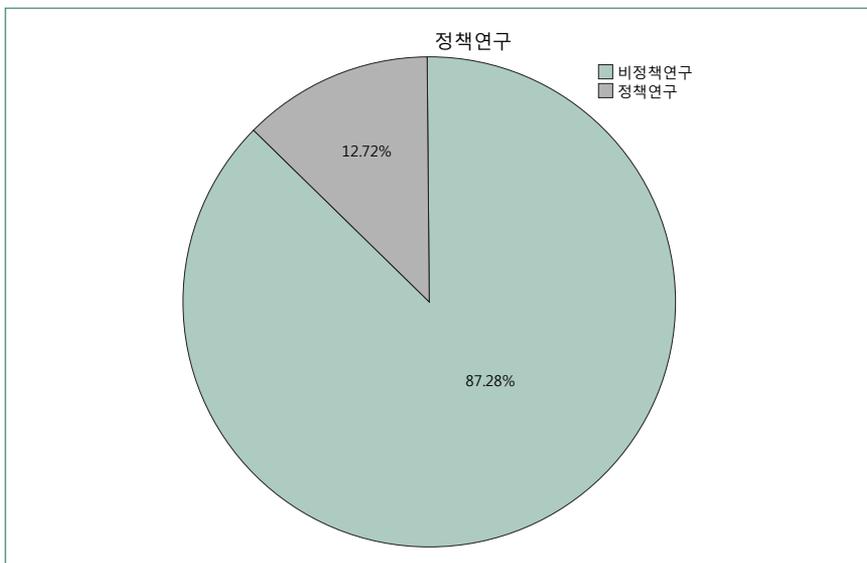


그림 4 중앙아시아 연구의 성격

과하다. 그 대부분도 한국과 몽골 경제 및 자원협력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사회과학적 지역연구는 매우 저조하다(표 5 참조).

중앙아시아 연구의 성격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이 직접적 외교 현안을 별로 공유하고 있지 않아서 외교적 측면의 정책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연구의 대부분은 자원 협력과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것이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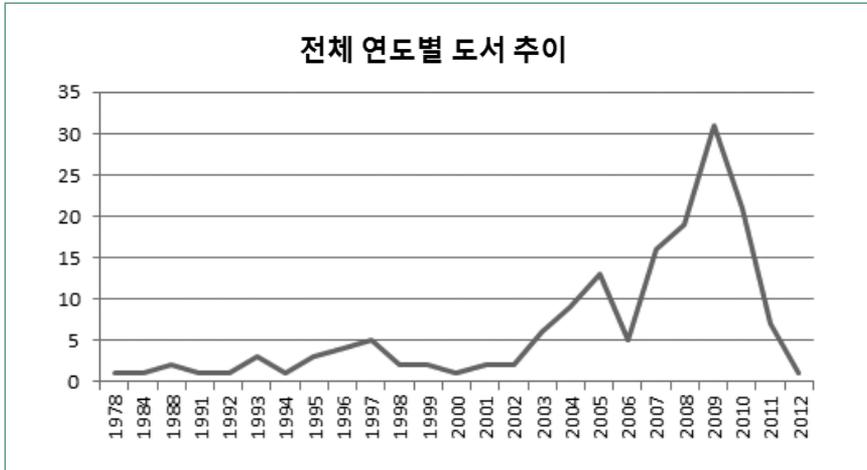


그림 5 중앙아시아 저서 발간 추이

전체 연구에서 정책연구의 비중은 12% 정도였다. 동북아 안보 및 다자안보 질서에 대한 SCO의 영향력 증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정학적 중요성 증대 등을 감안하면 대외정책적 측면에서의 정책연구가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적 지역주의에 대한 전략적 대응연구가 필요하며 중앙아시아의 자원 중요성에 비추어 자원협력 전략과 이와 연관된 패키지 딜 전략, 그리고 세부 시장에 대한 정책연구도 증대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스탄국가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는 크게 늘어나야 할 상황이다. 우선 스타국가들에 대한 역사연구가 매우 시급하다. 김호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많은 학자들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학회의 연구 논문들이 주로 동투르키스탄의 인문학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스타국가들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로 그 관심이 빠르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관련 저서도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크게 늘는 추세이다. 다만 2011년에 관련 저서의 출판이 준 것은 중앙아시아 연구 붐이 조금 주춤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중앙아시아 관련 저서의 경우에는 여행기나 안내서 등 전문서적으로 보기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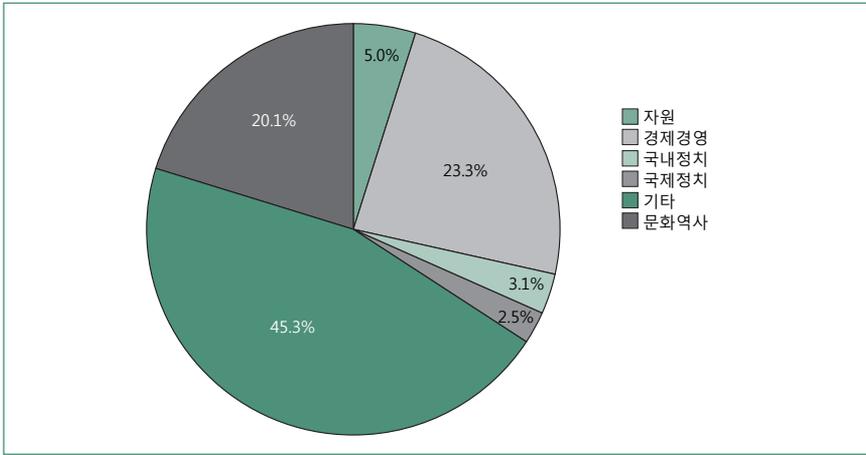


그림 6 중앙아시아 도서의 전공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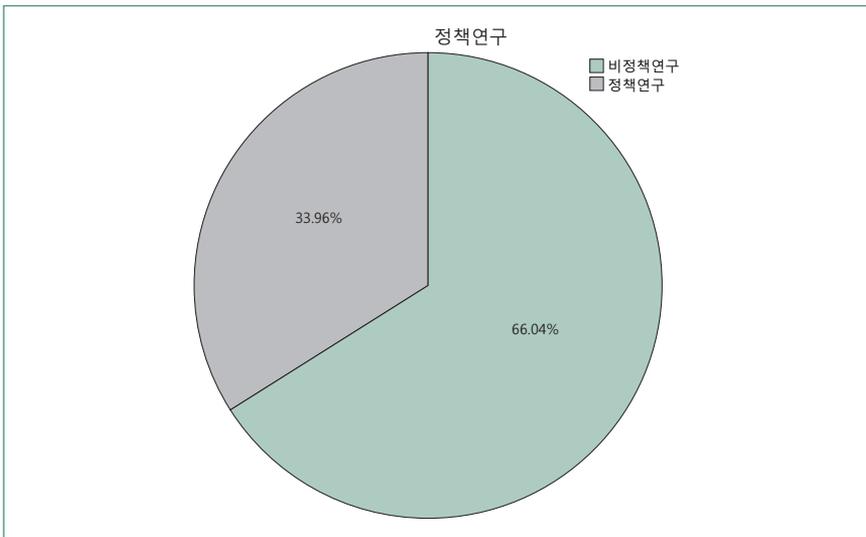


그림 7 중앙아시아 도서의 성격

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고 KIEP나 KOTRA 등에서 발간하는 정책보고서도 많아 경제 분야의 비중이 연구 논문에 비해 높다(그림 6 참조). 연구의 성격에서도 논문보다 정책연구의 비중이 높아 전체 도서의 1/3 정도가 정책연구의 성격

을 갖고 있다(그림 7 참조).

## 2. 최근 KIEP 지원연구와 연합학술대회의 연구 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9년부터 중앙아시아를 전략연구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20편, 2010년에는 15편, 2011년에는 21편의 논문을 지원하였고 2011년부터는 몽골과 터키 등 스탠 외 국가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KIEP 지원 연구는 첫째, 스탠국가 연구에 집중되었다. 2011년에 몽골 연구 7편과 터키 연구 한 편이 포함되었지만 그나마 자원 협력 등 경제 분야가 대부분이었고 위구르, 신장, 아프가니스탄, 카슈미르, 펀자브 등 스탠을 제외한 대중중앙아시아 지역 연구는 전무하였다(표 6 참조). 둘째, 정치, 경제 등 사회과학 기반의 중앙아시아 연구가 중심이다. 문화·역사·정체성 등 인문학 기반 연구는 17편으로서 전체의 30%에 불과하였다(표 7 참조). 셋째, 정책연구가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표 8 참조). 지원 기관의 성격상 경제정책 연구가 많을 수 있으나 프로젝트 지원이 아니고 논문 지원이라는 점에서 생각할 때 순수 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KIEP 지원연구의 국가별 분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스탄국가 공통	스탄 외 국가
2009	4	3.5	0	1	2.5	10	0
2010	1.8	3.8	2.3	1	0	6	0
2011	1	2	3	0	1	5	8
전체	6.8	8.3	5.3	2	3.5	21	8

표 7 지원분야 분포

	국내정치	국제관계	경제(자원)	문화·역사·정체성
2009	3	2	9(2)	7
2010	1	6	4(1)	4
2011	3	3	7(2)	7
전체	8	11	20(5)	17

표 8 연구 성격

	순수 연구	정책 연구
2009	12	9
2010	7	8
2011	9	11
전체	28	28

표 9 중앙아 연합 학술대회 논문의 국가별 분포

	카자흐스탄	우즈 베키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스탄국가 공동	스탄 외 국가
2009	1	3	0	2	3	15	2
2010	5.8	4.8	3.3	1	0	10	1
2011	3	0	3	0	1	17	3
전체	9.8	7.8	6.3	3	4	42	5

중앙아시아 연합 학술대회는 스탠국가 연구와 서투르키스탄 지역 연구의 통합, 인문학 기반의 중앙아시아 연구와 사회과학적 기반의 지역연구 통합이라는 두 가지 통합이 절실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중앙아시아 연구를 발전시키고자 시작되었다. 1차 중앙아시아 국내 학술대회는 2009년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슬라브학회, 현대중국학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등 4개 기관 주최로 개최되어 총 2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2차 학술대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앙아시아경제학회, 한국슬라브학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등 4개 기관 주최로 2010년 12월 1일과 2일 양일간 개최되었으며 총 2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3차 학술대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앙아시아경제학회, 한국슬라브학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등 4개 기관의 주최로 2011년 12월 3일 개최되어 총 2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학술대회의 아쉬운 점은 중앙아시아사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중앙아시아학회가 참여하지 않은 점과 위구르·신장 지역 연구자들이 있는 현대중국학회가 1회 이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중동지역 관련 학회와 서남아시아 관련 학회의 참여가 기대된다.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개념의 모호성에 비추어 볼 때 학회 간 협력이 절실하다.

표 10 중앙아시아 연합 학술대회 논문의 학문 분야

	국내정치	국제관계	경제(자원)	문화·역사·정체성
2009*	1	6	11(3)	7
2010	5	7	9(2)	6
2011	4	2	14(3)	7
전체	10	15	34(8)	20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논문 1편이 있었음.

표 11 중앙아시아 연합 학술대회 논문의 연구 성격

	순수 연구	정책 연구
2009	17	9
2010	19	8
2011	16	11
전체	52	28

연합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들의 대상 국가 분포를 보면 역시 스탠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표 9 참조). 학문 분야에서도 경제 및 자원 분야에 대한 연구 비율에 비해 정치 분야와 인문학 배경의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표 10 참조). 또한 이상의 연구 동향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스탠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탠국가 대상은 주로 사회과학 배경 연구, 스탠 외 국가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문학 배경 연구로 편중되어 있다. 학제적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최근의 연구 지원 동향을 보면 순수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특히 중앙아시아사 연구에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내적 연관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국내 학자 간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서투르키스탄 연구자와 동투르키스탄 연구자들 사이의 소통이 시급하다.

넷째, 몽골연구에 비해 위구르·티벳 연구가 급감하고 있어 이 지역 연구의 지속가능성이 염려된다.

다섯째, 스탠국가의 경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연구는 사실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여섯째, 1차 전문연구자의 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스탠국가들의 경우 러시아 연구자들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대학원에서도 중앙아시아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IV. 결론을 대신하여: 중앙아시아 연구의 방향 제언

### 1. 국가·국민정체성 연구는 새로운 키워드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연구는 체제 이행의 연구에 집중되었다. 유라시아 지역연구자들 사이에서 새롭게 부각된 연구 주제들이 폭넓게 공유되면서, 유라시아 지역의 이행과 변화의 동학을 추상화·개념화·일반화해 보려는 이론적 시도들이 활발해졌다. 비교시각에서의 탈공산주의 전환 경로 연구와 함께 그 동안 유라시아 지역연구에서 주변에 머물렀던 탈소 국가와 소수민족들에 대한 비교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특히 15개 신생 독립 국가들은 거의 동일한 역사적 유산과 국가·민족 건설 그리고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이라는 당면 과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각국의 체제 전환과 이행 경로를 상호 비교하는 데 이상적인 실험실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체제 이행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과거 소연방을 규정했던 소위 ‘레닌주의적 유산(Leninist legacy)’을 둘러싼 전체주의론과 근대화론 간의 해묵은 논쟁을 되살리기도 하였다. 연구 관심의 확대·심화와 함께 1990년대 유라시아 지역연구에서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개혁, 국제정치경제체제로의 편입 등이 중심적 연구 대상이 되었고, *Journal of Democracy*, *Демократизация*, *Transition*(world Bank), *Russian Economic Trends*, *Communist Economy and Economic Transformation* 등 새로운 저널들의 주요한 의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실증주의·행태주의적 연구에서 벗어나 인문지리적 연구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해체로 대표되는 유라시아 공간의 급속한 분열은 실증주의와 합리주의 전통에 기반하였던 당시까지의 사회과학의 무용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소연방의 몰락 이후 유라시아 지

역연구의 필수적인 전제는 역사적 격변의 근원에 대한 재해석과 재구성을 위한 학문적 방법의 모색이었다. 소련 사회에 대한 재개념화를 위한 이러한 시도들은 주로 과거에 등한시하였던 연구 대상과 주제들에 대한 새로운 탐색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체성 구명을 위한 문화연구, 전승 의례, 민담, 설화, 무속 등에 관한 민속지적 연구, 시간과 공간의 재구획을 중심으로 한 인문지리적 연구 등이 시작되도록 하였다.

체제이행과 민주화에 대한 관심은 최근까지도 여러 단행본들에서 이행기 엘리트 간 권력배분, 씨족 정치(clan politics), 제도 선택, 지리적 위상, 국가 정체성 등 새로운 변수들을 도입하면서 더욱 더 심화된 연구 결과들을 산출하고 있다. 특히 민족적·국가적 정체성 형성과 관련한 이슬람과 러시아 정교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소연방 해체 직후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그것의 붕괴 원인에 대한 근원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의 시도였다면, 최근의 다양한 민족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 소통에 대한 연구 관심의 증대는 유라시아 지역의 체제 전환의 경로를 보다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전망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공통의 지리적 공간이자 문화적·역사적 기억과 흔적이 침윤된 거대한 양피지(palimpsest)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독립 후 중앙아시아 지역은 개인적·민족적·국가적 정체성의 급격한 변화와 재구성의 과정 속에 있다. 정체성을 키워드로 삼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다종교·다문화·다민족이 공존하면서 그려내는 복합적이며 중첩적인 정체성의 전체적 지형도를 그려내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생겨난 것이다. 경제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 역사, 문화, 이데올로기, 언어, 종교 등의 요소들도 지역주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지역주의의 관점에서 보아도 유라시아 지역의 삶과 문화, 그리고 사회·국가적 전환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정체성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체성’ 개념에 대한 연구는 특정 지역 혹은 개별 국가들의 정체성을 인종, 언어, 종교 및 공통의 역사적 경험에 초점을 두어 바라보는 근본주의적 시각과 개별 주체의 정체성은 외부적으로 혹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간주관적(間主觀的) 상호작용을 통하여 항상 변화하고 재구성된다고 보는 구성주의적 입장을 모두 포용하는 포괄적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 2. 학제적 연구 지향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학제적 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공간의 다원성을 설명해주는 제국과 일상, 거대담론과 미시적 사실들을 동시에 주목해야 하며, 기존 지역연구의 지나친 정책학적 측면을 반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미시사적, 일상적 연구를 지역연구의 중심에 놓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서구의 지역학이 이미 이러한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결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반해 아직까지 국내의 지역연구는 각각의 학문 분야에 고착되어 있다. 우리는 문화적 콘텍스트 속에서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찰하고, 정치적 현상 속에 반영된 문화의 층을 밝혀내며, 거시적 틀을 배제하지 않은 채 미시적 사실들을 주목하고 기존의 학적 연구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주변부를 새롭게 중심에 놓으려 했던 다양한 서구의 미시사적 연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공통의 주제를 찾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각각의 학문 분야가 스스로의 연구관행을 반성하고 그것을 갱신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진정한 학제적 접근일 것이다. 예를 들어 위기에 봉착한 인문학이 살 길은 자기부정적인 수행성의 강조가 아니라, 오히려 인문학 고유의 본질로서의 삶과 사회, 인간의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 때 삶과 사회,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진정으로 폭넓은 연구를 위한 정치경제적 토대는 절대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과의 유기적 연계성은 그러한 인문학 연구방법론의 쇄신과 자기갱신을 통한 연구의 외연의 확대과정 속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과학 역시 고정된 방법론적 틀에 의거하여 수집된 정보를 분류 가공하고 그것을 분석, 서술하던 기존의 학문적 관행을 탈피하여, 그러한 현상을 촉발한 원인을 모색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과학은 인문학적 반성과 지향을, 즉 폭넓은 정보와 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인문학의 정신을 수용해야 한다.

사실 정치학과 경제학은 어학과 문학, 민속학과 역사학과 같을 수 없을 뿐더러 같아서도 안 된다. 물론 정치학과 어학의 결합, 문학과 경제학의 결합, 민속학과 정치학의 결합, 역사학과 문학의 결합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다. 어학에서는 정치 수사를 다루며, 문학은 텍스트 정치학을 주목할 수 있다. 정치학은 문학 텍스트와 출판문화에 반영된 권력의 문제를 고찰하며, 경제학은 경제와 대중문화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제적 연구만으로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주제적 측면의 유기적 연계성에 머무르지 않고, 각 학문 분야의 학적 반성과 외연의 확장을 요구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총체적 연구, 다양성과 공존을 전제로 하는 유라시아의 특수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중앙아시아학의 정립이 그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지역에 드리워 있는 제국의 흔적과 함께 그들의 개별적 삶과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주목함으로써 중앙아시아학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지역연구를 위한 공통의 목적 아래 각 학문 분과의 통합보다는 각 학문 분과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심화하며, 공존하게 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의 중요한 키워드는 ‘국가 정체성’이며 집단기억과 상호텍스트성 같은 인문학적 방법론이 도입되어야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일된 정체성을 찾아내는 작업은 대단히 복잡하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 즉 다문화, 다인종의 특성이 분석을 매우 복잡하게 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정체성, 제도적 정체성, 그리고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하는 민족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혼재하게 된 것이다. 이런 혼재를 혼란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지는 차치하고 이런 혼재의 기조는 현재의 중앙아시아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 역시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에 기반한 근대화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의 팽창주의나 내부식민지화(internal colonization)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탈러시아 현상 역시 이 지역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런 복잡한 지역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인문학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먼저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에서 출발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모리스 홀바

크(Maurice Halwachs)와 애비 와버그(Aby Warburg)가 독립적으로 만들어낸 집단 혹은 사회적 기억(collective/social memory)의 이론은 정체성의 발생과 유지가 계통발생적(phylogenetic)인 진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사회화의 과정과 습속의 형성으로 이뤄진다고 본다. 즉, 정체성이 어떤 내재적이고 초역사적(transhistorical)인 무엇이 아니라 실천과 교육, 일상생활의 실천(practice of everyday)으로 재생산되는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에 의해 생겨나고 유지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역연구를 위한 인문학적인 방법론으로서 집단기억은 기억과 정체성 사이의 관련을 몇 가지 특성에 유의해 살펴보게 한다. 첫째, 문화적 기억은 정체성의 응결(concretion)을 가지고 온다. 긍정적인 의미("우리는 터키인이다")와 부정적인 의미("우리는 러시아인이 아니다")의 양면에서 이 응결은 문화적 기억의 중요한 특질이며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둘째, 문화적 기억은 생산성을 지닌다. 기억은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기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의 전거(frame of reference)에 맞추어 재구성하려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셋째, 이런 생산성과 문화적 기억의 정치적 중요성 때문에 문화적 기억은 복잡한 제도화의 과정을 겪는다. 즉, 주관적인 기억이 확정되고, 객관화되고, 조직화되고, 기념되고(monumentalized), 재교육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문화적 기억이 생겨난다. 이러한 제도화의 과정은 정체성을 성립시키고 내면화시키는 데 빼놓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기억은 특정한 가치의 체계, 즉 당위적인 자기 이미지(normative self-image)를 만들어낸다.

이런 문화적 기억을 이용한 접근법을 살펴보면 어떤 집단의 정체성 연구에 집단 기억의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연구에서 국가들의 교육, 문화, 기념물(monuments) 등을 추적함으로써 각국의 집단기억이 어떻게 형성되고(혹은 만들어지고), 재생산되고, 내면화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지역연구의 지평을 크게 넓혀 줄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각국의 집단기억들 속에서 공통되는,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의 공통된 집단기억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공통된 집단 기억의 요소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공통된 정체성의 추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집단 기억을 이용한 접근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먼저 기억이라는 개념 자체에 담긴 모호성이다. 홀바크의 용어를 빌리자면 일상생활

의 소통적 기억(everyday communicative memory)이 객관화된 문화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기억으로서의 가치가 소멸되고 역사화 된다고 본다. 이런 객관화된 기억이 역사인지 기억인지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집단 기억의 모호성은 다른 한편으로 공식적 역사관(historiography)이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통찰을 줄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집단 기억의 형성주체(agency)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집단 기억이 일상 기억이 객관화된 형태라고 가정한다면 집단 기억을 표현하는 매체들을 관장하는 국가를 그 형성주체로 보는 관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집단 기억에 담긴 쌍방향의 동학을 무시할 수 있다. 더구나 집단 기억이 국가의 틀을 넘어 지역의 단위에 적용될 때는 이 형성주체의 문제가 더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집단 기억의 방법론만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을 규명하기는 힘들다. 개개의 국가를 집단 기억으로 추적하고 그 사이의 공통성을 발견하는 것은 정적인, 구조/제도적인(institutional) 차원의 정체성을 밝혀낼 수 있지만 이들 사이의 동적으로 형성되는 정체성을 추적하는 것은 다른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단일 문화 공간(single cultural space) 이론을 집단 기억의 방법론과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단일 문화 공간 이론은 다문화 지역에서,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가지고도, 같은 문화공간을 점유한 상태가 되어, 문화주체들 사이의 협력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느슨한 형태의 정체성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적용하기에 좋은 몇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먼저 단일 문화공간이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구조적 친화력(affinity)를 가져야 하는데 구소비에트 공화국들은 비슷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이런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단일 문화 공간 이론은 집단 기억의 방법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집단 기억이 가지는 모호성과 구조적인 정체성이 단일 문화 공간에서 역동적으로 표출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실천적으로도 단일 문화 공간 이론은 앞으로 유라시아 지역에서 성립할 수 있는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역 통합과 세계화의 침윤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 지역에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기반으로 한 단일 문화 공간이 성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단일

문화 공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유라시아 지역 내의 다양한 문화교류와 문화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집단기억 이론과 단일 문화 공간 이론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개의 문화적 특수성과 그 기저에 존재할 수 있는 유사한 집단기억을 추적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 정체성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밝힐 수 있고 단일 문화 공간 이론을 통해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행위주체(agents)들이 어떤 식으로 공통된 문화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형성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역공동체의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포괄적 지역의 내적 연관성 모색 지향

중앙아시아 연구가 스탠국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보아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개념은 민족적으로 동투르크인, 동이란인, 몽골족의 분포에 모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현대 지정학적 관점에서도 스탠 공화국들과 신장과 아프가니스탄을 중앙아시아의 문명 지대의 핵심 지역으로 하고 여기에 이란의 호라산 지역, 파키스탄의 북부지역, 러시아의 타타르스탄 지역, 인도의 라자스탄에서 아그라에 이르는 지역이 포함하는 대중중앙아시아 개념을 엄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범주가 스탠국가로 한정된 것은 러시아의 영향이 크다. 지난 2세기 동안 러시아는 신장과 아프가니스탄이 러시아의 통제하에 들어야 아시아 국가로서의 위상이 완성된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소련 정부는 1930년대 신장에 대리 정권을 세우고 1960년대에는 중국의 통치를 막으려는 적극적 시도를 하였다. 1973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소련 붕괴 후에도 러시아의 스탠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유지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 중국이 SCO를 통해 중앙아시아에 적극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자

원 확보 외에 신장의 분리주의를 막고자 하는 것도 있다. 미국이 아프간 사태를 빌미로 이 지역에 개입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봉쇄 노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에서 대중양아시아 또는 중앙유라시아라는 지역 개념을 들고 나오는 데는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의 중앙아시아 지역연구 개념은 스탠국가 중심적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아 민족적으로는 투르크인, 동이란인, 몽골족의 분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언어적, 종교적인 연관성에서 보아 중앙아 개념을 우리 학계가 보다 확대한다면 내적 연관성 연구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스타의 대중양아시아 개념에서 보면 중앙아시아는 완전히 서로 다른 3개의 지대로 이루어졌다. 북으로 몽골에서 헝가리 초원에 이르는 지역, 남으로 카스피해 초지로부터 신장 사막지역에 이르는 지역, 그 사막으로부터 서부 히말라야에 이르는 산악지대이다. 예를 들어 초지의 유목민들은 수직적 조직보다 수평적 조직을 선호한다. 오아시스 거주 민족들은 복잡한 수로 시스템 관리를 위해 매우 계층적 조직을 선호한다. 산악지대 민족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어서 집단 결속을 매우 강조한다(Starr, 2008: 7). 또한 민족적·언어적 차이도 크다. 대충 나누어 보면 초지 유목민들은 투르크어를 사용하고 산악지대 민족들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내적 연관성을 찾고자 하는 것은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어떤 공통성이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 세 지역이 서로 다른 환경으로 하여 각 지역에 맞는 생산 활동을 해왔지만 유목민족이건 정착민족이건 서로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호의존성을 보여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투르크 유목민들이 오아시스 지역을 정복하면 그들은 페르시아 중심지를 투르크 제국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쿠산 왕조, 카라한 왕조, 셀주크 투르크, 티무르 제국하에서 페르시아어는 경제적 거래와 정부의 언어로 사용되었다. 또한 페르시아의 사만 왕조는 투르크 군에 의존하였다. 이 지역의 제국들은 민족적으로 항상 섞여 있었고 다양성이 이들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국가들의 대다수 종교는 수니 이슬람과 하나피 학파였지만 수피즘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또한 자디즘과 근본주의 살라피즘의 영향도 컸으며

심지어 기독교도와 유대인도 있었다.

현재 이러한 내적 연관성이 명확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했던 시절은 다양성이 공존했던 제국시절임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또한 지난 2천년 동안 지역 내 소통의 엔진이었던 실크로드의 존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 투르크인인 우즈베크과 페르시아인인 타지크가 오랜 동안 상호 혼인 관습을 유지해 온 것은 연관성이 깨어지지 않은 좋은 증거이다.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보다 포괄적 지리적 개념으로 연구해야 할 당위성은 각 소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기능적 전문화와 운송의 용이성에 기초하여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경제적·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속할 것이며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원심력적 요소보다 통합적 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정체성 중심의 연구와 학제적 연구 지향도 이러한 포괄적 지리적 개념하의 내적 연관성 모색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결실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투고일: 2012년 5월 7일 | 심사일: 2012년 5월 21일 |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7일

## 참고문헌

- Starr, Frederick S. 2005. "A Greater Central Asia: Partnership for Afghanistan and its Neighbors."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and Silk Road Studies Program Joint Center, Policy Paper - Washington, DC: Joint Transatlantic Research and Policy Center.
- \_\_\_\_\_. 2008. "In Defense of Greater Central Asia."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and Silk Road Studies Program Joint Center, Policy Paper - Washington, DC: Joint Transatlantic Research and Policy Center.
- Stone, Leonard. 2005. "Research developments in Contemporary Central Eurasian

Studies.” *Central Asian Survey* 24(4), 441–451.

Богатуров А.Д. 2005. Центральнo–Восточная Азия в современ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литике // Восток. № 1. 102-118.

---

**Abstract**

## Research Trends in Central Asian Studies in Korea

Gu Ho Eom Hanyang University

---

The recommendable directions for area studies today all have the word ‘interdisciplinary’ as a ke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pure arts and science studies and applied policy studies, and regional area stud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 studies. Judging by these standards, the Central Asian studies in Korea seems to be at its infant stage, which is only logical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is academic field was founded in Korea only in 2005. Some of the problems that the Korean academia faces are as follows: First, recent studies in both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have tended to focus on the stan countries, but only a few of these studies have been interdisciplinary in character.

Secondly, financial support for researchers of pure arts or pure science studies have been far from sufficient, and this is especially true for researchers of Central Asian history. Thirdly, more studies focusing on the internal relations within the Central Asian region are required. Meanwhile, the geographical conception of the Central Asian region remains as a contested one among scholars, and therefore, academic exchange and communication between scholars studying West Turkestan and those studying East Turkestan are urgently needed. Fourthly, studies on Uyghur-Tibek have fallen short in number, in comparison to studies on Mongolia. Fifthly, although studies on the stan countries have been accumulating,

those on Tajikistan, Kyrgyzstan, and Turkmenistan, however, remain in their infant stage. Sixthly,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raining our Korean specialists in specific areas. For instance, studies on the stan countries have been dominated by Russian specialists. More courses on Central Asia should be offered by graduate schools in Korea.

In order to overcome the abov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three ways: First, the Central Asian region has undergone rapid changes in terms of reconstructions of an individual after the independence, such as the individual's ethnic and national identity. In this respect, studies focusing on the individual's 'identity' as a key word are required to sort out the complex map of individual identities in the Central Asian region, as well as to shed a new light onto its multilayeredness, namely its multi-religious,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Secondly, I suggest that every study field be respected for its distinctive character, and that we help to build on them, which will ultimately benefit the field of Central Asian area studies as a whole.

Thirdly, the Central Asian studie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stan countrie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geographical conception of Central Asia should be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the Turks, East Iranians, and Mongol. Even from the contemporary geopolitical point of view, we need to reset the definition of Greater Central Asia as one which claims the stan countries, Xinjiang, and Afghanistan as the core region of the Central Asian civilization, and one which encompasses the Horasan region of Iran, the northern region of Pakistan, the Tartar region of Russia, and the region spanning from Rajasthan to Agra in India. For the identity-focused studies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suggested here to become meaningful in any way, it is necessary that they conform to this comprehensive geographical conception of Central Asia.

**Keywords |** Central Asia, Research Methodology for Area Studies, East Turkestan